

남원의 밤 수놓는 '청사초롱' 인기 임실군, 수도권 직거래장터 호응

빅데이터 분석 결과 '호감도 입증' 야간관광 핵심 요소 인식 확인

남원시(시장 최경식)가 춘향제 사전 홍보와 구도심 야간 경관 활성화를 위해 조성해 온 '청사초롱'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단순한 설치물을 넘어 관광객 등에게 압도적인 호응을 얻는 야간관광의 핵심 요소로 인식됨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고려대학교 융합연구원 디지털 혁신연구센터에서 수행한 '남원시 SNS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를 인용해, 청사초롱에 대한 SNS상 감성어 분석(공부정)결과 △예쁘다 △아름답다 △고고느려하다 등 시각적·감성적 만족을 나타내는 긍정 반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 20일부터 올해 1월 19일까지 분석된 주요 결과에 따르면, 청사초롱에 대한 실제 방문 경험·미적 만족도가 매우 높음으로 나타났으며, 감성어 분석 중 긍·부정비율에서 긍정이 1,135건으로 90.3%를 차지하는 등 감성 관광 자원으로서의 확고한 호감도를 입증했다.

또한 일정한 계절성(봄·가을)과 행사 특성 등을 가진 관광형 검색 키워드로, 이 기간 최대 온라인 언급량이 약 100만 건을 기록할 만큼 계절적 특성을 보이며, 특히 블로그를 통한 정보 탐색과 인스타그램 중심의 인증샷 콘텐츠가 결합된 형태를 보였다.



남원시가 춘향제 사전홍보와 구도심 야간 경관 활성화를 위해 조성해 온 '청사초롱'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단순한 설치물을 넘어 관광객 등에게 압도적인 호응을 얻는 야간관광의 핵심 요소로 인식됨이 확인됐다.

특히 연관이 분석에서 '청사초롱'은 남원·춘향·관광 등 지역 정체성과 강하게 결합된 키워드로서 여행·축제·사진·산책 등 관광 행위 중심 연관어가 우세하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 '조명·야경·거리' 연관이 빈도가 높아, 전문문화 상점을 넘어 '야간 경관 관광 자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스타그램에서는 '야경'과 '감성' 중심의 관광 이미지로 '청사초롱'을 강력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다만 커뮤니티 등 일부 채널에서는 '세금 및 철거' 중심의 행정 이슈가 인식됐지만 전체 반응 중 제한된 이슈에

국한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결과에 고려대 디지털 혁신연구센터에서는 청사초롱에 대해 설치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야간 경관·관광·공공감성 자산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설명하느냐의 정책 설계 사항 등 실질적인 절거의 반복이 아닌, 남원의 밤을 밝히는 지속 가능한 문화자산으로 견인해야 한다고 정책적 시사점 등을 제안했다. 이에 시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청사초롱을 야간 경관형 공공문화 인프라로 포지셔닝하는 등 청사초롱의 정책적 성격을 재정하고 관리 체계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자매결연도시서 도농 상생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 상생의 장 마련

임실군이 설명절을 맞아 임실(치즈 등) 우수 농특산물을 20% 할인판매하는 직거래장터를 열며, 수도권 소비 자들에 대한 집중 공략에 나섰다.

군은 지난 5일부터 자매결연 도시인 서울 강서구를 비롯한 5개 자치구에서 '설맞이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에 참여해 지역 농가와 도시 소비자를 직접 잇는 상생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설맞이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는 5일과 6일 서울 강서구 마곡공장과 양천구 양천공원을 시작으로 △서대문구 홍제폭포광장(2월 7일) △구로구 구로구청광장, 마포구 마포구청광장(2월 11일~12일) 등 서울 일대에서 설 명절 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임실군과 서울 강서구가 1999년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교류행사의 일환으로 도농 간 상생과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장에는 임실엔지니어링센터, 임실축협 등 임실군 관내 11개 업체가 참여해 임실치즈와 유제품, 임실한우, 한과 등 임실군을 대표하는 우수 농특산물을 시중가보다 최대 20% 할인된 가격으로 저렴하게 선보이며, 대도시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가장 먼저 열린 서울 강서구



직거래장터 행사에서는 임실군 고향 사람기부제 참여자를 대상으로 기존 답례품 이외에 '두준꾸(두바이준꾸키)'를 추가 증정하는 이벤트를 함께 진행해 농특산물 판매와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확산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이끌어냈다. 이와 함께, 임실군청 공식 유튜브 채널 '임실엔 TV' 구독 이벤트도 병행 운영하며 서울 시민들에게 임실군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또한, 농협중앙회 임실군지부는 쌀 1kg, 150개 증정 이벤트를 마련해 농특산물 구매를 유도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 교류 확대와 상생분위기 조성을 힘에 보탤 예정이다.

이 같은 직거래장터 행사는 최근 3년간 약 4억 5천만원 상당의 매출을 기록하며 지역농가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둬 왔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설 연휴 기간 비상방역체계 가동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는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설 연휴 기간 수인·식물매개 감염병 집단발생에 대비해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비상방역체계를 운영한다.

남원시 보건소는 감염병 대응을 위해 신속한 신고를 접수 받는 등, 비상 근무조를 편성해 24시간 비상 연락 체계 유지하는 한편, 집단발생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

남원시보건소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올바른 손 씻기 6단계 생활화(흐르 성·식물매개 감염병 집단발생에 대비해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비상방역체계를 운영한다. 남원시 보건소는 감염병 대응을 위해 신속한 신고를 접수 받는 등, 비상 근무조를 편성해 24시간 비상 연락 체계 유지하는 한편, 집단발생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신청 접수

순창군이 주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군은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대상자를 모집해 석면이 함유된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와 지붕 개량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지원 규모는 주택 324동, 비주택(창고·축사 등) 30동, 주택 지붕개량 48동 등 모두 400여 동에 이른다.

취약계층은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 가구도 조건에 따라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금액은 주택 철거의 경우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비주택 철거는 철거 면적이 200㎡를 초과할 경우 사업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붕 개량은 일반 가구에 500만 원, 취약계층에는 최대 1,000만 원이 지원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행복 버스' 주민 이동 편의 ↑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지난 1월 1일부터 교통 취약지역인 산내면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행복 버스'를 일 2회 투입해 운행하며 주민들로부터 환영받고 있다.

행복 버스는 오전 11시 20분 인월시장을 기점으로 산내초교와 달궁

(12:00)을 경유하며, 인월시장에 이르는 순환 노선으로 운행되고, 오후에는 16시 인월시장을 기점으로 산내초교와 달궁(16:40), 상황(17:05) 마을을 차례로 경유한다.

이번 행복버스 투입으로 산내면은 기존 시내버스 7회와 마을버스 2회를



포함해 하루 총 9회 운행으로 주민들의 이동편이 한층 강화되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의회, 제350회 임시회 폐회

임실군의회(의장 장종민)는 지난 6일 심민 임실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50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열고 11일간의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며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군정 전반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고, 군정 운영 방향을 점검하며 주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처리된 주요 안건은 △김종규 의원



이 대표발의한 「임실군 드론영농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성재 의원의 「임실군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정일운 의원의 「임실군 안

전취약계층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11건, 동의안 5건, 관리계획안 1건, 의견청취안 1건 등 총 18건이다.

장종민 의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주요업무보고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향후 사업 추진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세심하게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이 열릴 앞으로 다가온 만큼, 가족과 이웃이 함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보내면서, 주변의 소외된 이웃에게도 관심을 기울이는 따뜻한 정이 오기는 명절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시, 방현지구 배수개선사업 선정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집중호우 시 상습 침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방현지구 배수개선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0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하천 합류지점 병목현상으로 인하여 집중호우 시 내수배제가 어려워 농경지 침수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해온 지역이다.

특히 여름철 장마 기간에 농작물이 침수되며 생산량이 감소하는 등 농업인들의 불편과 피해가 지속되어 오랫동안 개선 요구가 제기돼 왔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수문 1개소 신설 △배수문 7개소 정비 △배수로 정비 13조(L=5.9km) 등 2080년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침수 위험을 대폭 줄이고 농업 생산성 또한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지된 귀석리 일원에서 발생하는 상습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귀석지구 배수개선사업도 기본조사지구로 선정되었으며, 2026년 기본조사 실시 및 신규착수지구 신청을 통해 2027년도 신규착수지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청년창업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순창군이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2026년도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순창군은 지난해 이어 올해도 관내 청년 예비창업자 5개소 내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창업 초기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상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예비창업인이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실내 인테리어 비용과 기계·장비 구축비 등 초기 창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비용이 지원된다.

신청 기간은 9일부터 오는 20일까지다. /순창=이양원 기자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황희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通樓)라 불렸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인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돌리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은 남아 놓았는데, 여덟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누마루와 난간을 돌리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무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투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도 손꼽히고 있다. (출처: 문화재청 제공)

전주매일 캠페인